

전체 주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3

아브라함의 하나님

(3)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사는 것에 관한

영적 원칙들과, 생명 공과와, 거룩한 경고들

성경: 창18-20, 대하20:7, 사41:8, 약2:23

I.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는 두 친구 사이의 인간적이고도 친밀한 대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밝히심에 따른 친밀한 이야기였다—롬4:12, 대하20:7, 사41:8, 약2:23, 아1:1-4, 계2:17, 창18, 딤페전2:1, 8

- A.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체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수준에서 그와 이야기하셨다—창 13:18, 18:1-2, 13-15.
- B.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을 누리면서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관해 계시를 받았다—9-22절.
 - 1.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넣는 역사를 하시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산출하여 우리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소돔’을 멸하시려는 것임을 보여준다—갈1:15-16, 2:20, 4:19, 고전5:8.
 - 2.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는 가능하다는 계시를 받는다—창18:14, 눅18:27.
- C.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시려는 의도를 계시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창18:17-22, 참조 히7:25, 사59:16, 겔22:30.
- D. 창세기 18장은 중보 기도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제시한다.
 - 1. 합당한 중보 기도는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시작된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17, 20-21, 19:27-29, 시27:4,8, 히 4:16, 7:25, 약5:17.
 - 2. 아브라함이 걸으려는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롯을 위해 던지시 중보기도하고 있었다(창14:12, 18:23, 19:1, 27-29). 이는 우리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 갈망을 따라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배워야 한다—18:25-32, 마6:6.
 - 4.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따른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빌지 않고 그분의 의로운 길에 따라 요구했다—창18:23-25, 롬1:17.
 - 5.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말을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종결시켰는데, 이는 진정한 중보 기도란 우리의 말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임을 보여준다—창 18:33, 롬8:26-27.

II.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을 유지하려면, 세상에서 멋대로 사는 생활이 지각을 잃게 하는 영향을 이겨야 한다—눅17:26-32, 창19.

- A. 롯이 패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증인이자 간증인 아브라함에게서 스스로 떠나 소돔이라는 사악한 도시로 떠나려갔기 때문이다—13:5-13, 14:12, 벘후2:6-9.
- B. 우상의 장소인 갈대아 우르,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의 장소인 애굽, 죄의 도시인 소돔이 가나안 땅 주변의 삼각 경계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삼각 경계 안에서만 살아야 하고 반드시 그러한 사탄적 삼각형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렘2:13, 요일5:21, 딤후3:1-5.
- C. 하나님을 버린 사악한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천한 욕정’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려 배역하고 양심을 거절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이다—창19:4-11, 롬1:21-27, 2:14-15, 딤후4:2.
 - 1.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소돔의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씻음 받고, 하나님에 의해 기록게 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열납될 수 있다—고전6:9-11.
 - 2.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롬1:21, 25.
- D. 롯이 자기의 두 처녀 딸을 희생하여 소돔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려고 자원했던 것은 그가 소돔이라는 죄악된 도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거함으로 도덕성과 수치심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창19:8, 11-13, 30-38.
- E. 롯에게는 그 악하고 정죄받은 도시에서 떠나려는 자원함이 없었으나 주님은 긍휼이 넘치시어 나무를 불 속에서 뽑아 내듯이 그를 소돔에서 끌어 내셨다—16, 참조 슄3:2, 유19-23.
- F.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이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다—눅17:31-32, 창19:15-17, 26, 눅14:34-35, 요일2:27-28.

III.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합당한 입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다시 한번 육체 안에서 그의 과거의 실패를 반복했다—창20, 참조 12:11-13, 13:18.

- A.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높은 달성을 했더라도, 우리가 아직 옛 창조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육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같이 행동할 수 있다—20:2, 엡4:17-19.
- B.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가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실패는, 주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를 은밀하게 보류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의 감추인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다—창20:13.
 - 1.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실패나 사라가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필요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다—17절, 욥42:7-10.
 - 2.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둠하든지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인 우리는 그분의 신언자들이요, 그분의 새 창조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창20:7, 고전14:31, 고후5:17, 엡5:30.